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15강, 바울의 특정 구두 보고/소문에 대한 대응, 고린도전서 5:5-13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15강, 바울의 특정 구두 보고/소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고린도전서 5:5-13.

글쎄요, 고린도전서 5장을 계속 읽고 이 장을 완성하기 위해 15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특히 1~4절을 살펴보고, 지금은 5절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조금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5절은 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 육체를 멸망시키라고 말합니다.

저는 2011 NIV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20, 실례합니다. 제가 원래 NIV를 읽고 있다면, 죄의 본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을 텐데, 새로운 NIV에서 이 부분을 제거해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번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이 본문과는 다른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에 그의 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육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계모와 결혼한 이 남자가 있고, 바울에 의해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회 기준으로요. 교회는 이 남자의 행동에 대해 오만했는데, 아마도 그가 오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후원자이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교회의 도덕적 판단이 늦어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여자와 재혼했을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듯했고, 모두가, 글쎄, 뭐든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폴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5.5로 가서 교회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그는 너희가 모여야 한다고 말했고, 5절에서 너희가 모였을 때, 너희는 그를 사탄에게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썄요, 징계의 영역은 70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주석에서 확장되어 있고, 징계의 영역은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된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디모데전서 1:20의 다른 곳에서만 사용됩니다. 비슷한 맥락을 가진 다른 곳을 비교할 수 있지만, 사탄에게 넘긴다는 이 문구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의 문구의 명백한 의미는 파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탄은 욕기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든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사탄은 신의 대리인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교회가 그 남자를 사탄에게 넘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들이 그를 사탄에게 넘긴다면, 그것은 사탄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무엇인가? 그리스어와 그녀의 꾸란 저주 공식 사이의 상관관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저주 공식이라고 말했고, 학자들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결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등장할까요? 글썄요, 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방탕한 기독교인을 돌보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악마와 공모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과 결코 동등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빛과 어둠이 없습니다. 사탄은 어둠이지만, 저는 그를 사탄에게 넘기는 것이 더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정의하신 영역 밖에 있는 것은 교회를 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우산이죠.

그리고 교회는 우산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고, 우리는 마치 성령에 의해 교회에 법의학적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는 몸의 일원이 되고, 우산 아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들어가고, 그런 다음 우리는 이런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위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오만함이 그것을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회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파문당하기 위해 교회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이제, 이 우산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썄요, 우산 밖에는 세상, 교회,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서 끌려나와 세상에 나가면 그는 더 이상 우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는 이 세상, 세상 체계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가 과연 기독교인인가? 하지만 그는 마치 기독교인인 것처럼 다루어지는 듯합니다. 그는 우산의 보호에서 벗어나 세상의 요소로 던져집니다. 제 생각에, 이 글에서 암시하는 바는, 그것이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탄에게, 사탄의 영역으로 넘기는 이 사건은,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교회의 영역이고 사탄의 영역인 여러 구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옛 Johnny Carson 저녁 쇼의 비유가 아닙니다. 안녕 Johnny, 또는 실례합니다. 여기 Johnny가 있습니다. Ed McMahon이 말하곤 했습니다. 글썄요, 이것은 안녕 Satan이 아니고, 여기 John이 있습니다. 여기 이 죄인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영역은 교회의 원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우산 아래에서 사람을 세상에 두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는 사탄의 영역에 넘겨졌고, 그는 밖에 있습니다. 원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클 밖에서는 취약합니다. 이제, 그는 "음, 당신은 마침내 저 영터리에서 빠져나왔지?"라고 말하는 다른 지위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이 진정으로 개종하고 바뀌었다면, 쫓겨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전 이교도 친구들이 그가 변화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듣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그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사탄에게 넘기는 것은 구원론적 통로가 아닙니다. 그를 사탄에게 넘기는 것은 징계적 통로입니다. 그는 보호의 우산 아래에서 쫓겨남으로써 손상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고,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신자에게 그들의 길의 오류를 깨닫게 하기 위해 고안된 규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문구의 용법입니다. 이제, 그 문구의 중요성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디모데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께서 사탄을 예비적으로 물리치신 데 기초를 두었습니다. 켈리가 여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작용했던 영역에서 배제되고, 즉 파문당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이 여전히 권위를 행사하는 곳으로 다시 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문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심판의 증거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육신의 파괴가 이 사람이 죽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때로는 그 죄를 대중에게 묻고 스스로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표시입니다.

죄인은 죄를 애도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렇게 하며, 교회에서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과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훈련에 대한 설명은 육체의 파괴입니다. 저는 이것을 객관적 소유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육체가 파괴를 받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것이 원래 NIV가 육체를 죄스러운 본성으로 번역한 지점입니다. 그 특정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세상에 내놓고,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들의 죄스러운 성향이 다루어지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 것이고, 그들은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교회에 날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죄악적 본성 은유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육체로 생각해야 하며,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신자라면 육체적 고통의 심리적 측면도 여기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애도할 수 있었지만, 완고함으로 인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ESV는 이 사람을 육체의 파괴를 위해 사탄에게 넘기고, NIV는 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 죄의 본성이 파괴되도록 했습니다. 이 두 견해는 실제로 같은 결과를 가정합니다.

그 남자는 회개할 것이고, 이 모든 심판과 파문은 그의 주의를 끌 것이고, 그는 교회로 돌아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저주의 문제는 아니지만 손상의 문제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과를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조금 후에 언급하겠지만, 고린도후서는 실제로 나중에 이 사람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설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선, 개별 신체 관점입니다. 이것을 형식적 관점, 저주,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저는 여러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파괴는 질병과 같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이 견해는 육체가 사탄에게 넘겨진 물리적 신체를 지칭하는 것에 기초하는데, 이는 쿰란과 마법의 파피루스에서 발견되는 저주 공식과 유사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처벌, 죽음에의 위탁은 구제책으로 여겨지며, 종말을 위해 그 사람을 구출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는 그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고, 그들이 진정한 신자라면, 그들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즉시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양 때로 다시 데려온 사람에 대한 언급이 같은 사람이라면 편리합니다.

이 해석은 파문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지만, 그것은 쟁탈의 여지가 있는 해석입니다. Garland는 이 견해를 자세히 비판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친교와 관련하여 죽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평행 본문이 같은 종류의 맥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한 사람이 보는 방식이고, 다른 사람이 보는 방식입니다. 저주받은 텍스트라고 주장되는 것은 진정한 유사점이 아니며, 이는 정당한 비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신비 종교에서 나중에 나오는 저주받은 텍스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저주받은 텍스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실제로 과거의 죄를 속죄한다는 후기 랍비들의 생각은 바울의 구원과 용서에 대한 견해와 상치됩니다. 고대 문화에서 집단으로부터의 배척은 매우, 매우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문화에서 은세공인 길드, 천막 제작자 길드, 연설가 길드와 같은 길드에서 배척을 당하든, 길드에서 배척을 당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갇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역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과거를 묻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이러한 배척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새로운 그룹에 합류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은 당신의 교회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당신의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길 건너편으로 가서 열린 팔로 환영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에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단지 개인의 몸이 아닌 법인체 관점이라는 두 번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사탄의 영역으로 보내어 집단에서 누락을 정화한다는 진술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로서 집단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성적 죄는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 중에서 성적 죄는 다른 사람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제한된 집단과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더 큰 집단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말입니다. 이 관점, 즉 단체적 관점은 바울이 개인보다는 집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는 본문의 세부 사항에서 매우 지배적입니다.

구약은 전체의 순수성을 위해 배제에서 추방으로의 전환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매우 흔한 모티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밖에 두면 사탄의 세력에 취약해집니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출된 우산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욱신은 죄스러운 본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욱신은 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욱신은 하나의 진술이지만, 우리는 욱신의 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범위한 의미를 포괄합니다. 이 기업적 관점은 죄악적 지향에 대한 죄악적 본성 관점과 조금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죄악적 정욕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회개하게 합니다.

이 설정에서 욱체는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자급자족으로 특징지어지는 죄에 기울어진 자아입니다. 사실입니다. 제 말은,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죄스러운 본성은 거룩하게 하는 과정의 일부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의 패턴으로 이것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동기가 필요하고, 공동체는 우리에게 동기를 줍니다. 하지만 이 맥락에서 회개가 목표라는 언급은 없지만, 확실히 가정된 것입니다. 사탄을 회개를 일으키고 사탄에게 넘겨주는 도구로 두는 것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에 대한 견해에 대한 비판에서 그러한 유사점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Garland에 대한 언급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개인의 몸이 휘둘러져 그를 다시 몰아내는 개인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당신은 기업 관점을 가지고 있고, 누룩을 제거하고, 밖으로 나가면, 그는 자신의 죄와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신자라면, 그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견해 중 하나를 취하는 데는 어느 정도 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두 견해가 모두 표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보다 전체적인 이해인 세 번째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 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서양 해석은 항상 사물을 다른 것과 대조되는 한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 경우 두 가지 모두 사실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견해가 그럴 경향이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분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육체에 대해 말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스러운 본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충분히 좋습니다. 육신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죄악적인 본성을 바라보고 육체적 측면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심지어 갈라놓으려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항상 삶에 대해 전체론적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물을 별개의 실체로 나누지 않습니다. 아마도 위의 모든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것은 언어적 설명의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레온 모리스가 말했듯이, 돈을 내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사실 이 각각은 전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 있지만, 저는 바울이 더 자연스럽게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풀이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그가 자신의 죄와 접촉할 것이라는 뜻인가요? 풀은, 글썄요, 물론, 육체적 으로나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을 때, 하지만 그 중 어느 것도 범주로 구분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상처받았고, 육체적으로 상처받았고, 내면적으로 상처받았고, 당신의 내면,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신에 대한 성향이 있었던 곳에서, 그것은 그 성향을 다시 신과 접촉하는 것으로 바꿀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가 있으면, 공동체에서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괜찮지 않다고, 이것을 덮을 방법이 없다고, 당신은 나가라고 하면, 그것은 꽤 큰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우리 문화,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회중이 하기에는 꽤 힘든 일이고, 항상 법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몇몇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 판단을 해내는 것은, 이 판단은 꽤 명확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동시에 사람들을 돌보고 회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우리는 온 겸손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너무 고상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의 사랑으로, 하지만 신의 은총을 위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영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물질적 측면, 즉 죽음의 파괴가 비물질적 측면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관점은 이것을 최후의 종말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3:15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자아는 구원받지만 보상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 건초, 짚에 대한 진술입니다.

결국 우리가 명확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자의 훈련의 목표는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본질은 항상 다른 텍스트에 의해 인도될 것이며, 이는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지위는 그들이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불신자였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5:5의 해석과 그가 불신자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5:5에 대한 당신의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그가

신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가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그가 한 말을 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죄스러운 본성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자와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차피 구원받지 못했다고만 말함으로써 이 텍스트의 도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깨어나야 할 신자였습니다.

꽤 힘들었어요. 꽤 외적인 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슬픔에 빠졌다가 공동체로 돌아온 사람이 같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기 73페이지 상단에 있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과 같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으니, 제가 그 중 일부를 읽어드리면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바울은 누군가가 근심하게 했다면, 그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어느 정도 근심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심하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그에게 가해진 처벌은,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인가? 대다수에 따르면 충분하다. 이제, 그 대신, 당신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지나친 슬픔에 압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그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기를 촉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쓴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시험을 견뎌내고 순종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용서하는 사람은 나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한 것은, 용서할 것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습니다. 사탄이 흥미로워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는 그것을 언급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계락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이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제 생각에는 이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암시가 조금 있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파문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죄와 행위를 진정으로 마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우 여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보통 고대 문화권에서는 남성 중심적이어서 여성이 모든 비난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다릅니다.

하지만 로마 코린트에서는 남성이 우세했습니다. 여성은 어떤 면에서 막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로마 자체는 불순종하는 여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남성 우월적 문화에 의해 통제되는 규범을 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우월적 문화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텍스트에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책임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도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이야기의 이 한 면만 듣습니다. 많은 세부 사항이 있지 않나요? 성경을 간단히 읽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도전적이며, 우리는 그 도전에 맞서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우리는 근친상간을 하는 이 남자, 또는 근친상간을 저지른 남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죄를 즐기는 것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6절에서 8절까지 전체 공동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을 주목해 봅시다. 이 단락에서, 즉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누룩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들의 죄악적인 자랑을 풀어냅니다.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나요? 정말 구약성서예요. 기억하세요, 그는 유대인이예요. 그는 아마 바리새인일 거예요.

그는 구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은유와 성경적 이미지를 이해합니다. 누룩은 구약에서 죄에 대한 주요 은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축제에서 무교병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죄악적인 자랑, 지위에 영향을 받은 거짓된 태도를 반영하는 자랑. 윈터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바울이 죄를 정화하고 신의 뜻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 한 유월절 이미지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유대적 사상과 511년의 목록에 대한 호소는 이러한 유대적 뉘앙스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다. 우리는 고린도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로마의 고린도에 통합되었습니까? 그러니 덩어리를 없애세요. 제거하세요. 잠깐 멈추어 바울이 여기서 구약을 권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위 있는 이미지입니다. 구약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규범적인 많은 신성한 도덕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가르침의 특정 측면을 없애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구약성경에서 가르쳐지는 도덕적 제한을 없애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망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약의 도덕적 교훈을 입증합니다.

예수님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수사적 용법, “너는 모르느냐?”를 강조하세요. “너는 모르느냐?” 5:6, 6:2, 6:3, 6:9, 6:15, 6:16, 6:19, 그리고 다른 곳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모르느냐?” 보세요, 그것은 수사적 기법입니다.

무슨 역할을 하나요? 우리의 주의를 끌죠. 이 글을 회중에게 읽어주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독자는 좋은 독자로서 거기에 있습니다.

모르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독자와 청중, 저자와 그의 청중 사이에 상호 작용을 일으킵니다. 매우 중요한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방대한 반복과 반복은 항상 이해로 가는 창문입니다. 이 문구의 방대한 반복은 본문을 소리 내어 읽는 사람들의 귀에 확실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모르는 것의 대부분은 복음의 도덕적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서 명성과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게 영리하지 않나요? 바울이 말했듯이, 좋아요, 당신은 로마 고린도에 있고, 지위에 따라 행동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경적 관습보다 지위를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에 빠졌습니다. 좋아요, 성경적 지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독교인 지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행동 때문에 당신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명성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공동체의 길드에서 지위를 잃었습니다.

고린도의 일부 사람들의 엘리트주의적 경향을 감안하면 얼마나 영리한 비판인가. 좋아요,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죠. 2번, 73페이지 중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부도덕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5:9에서 13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사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독서의 특권이었는데,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통되었지만, 아마도 장로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접근을 막았기 때문이 아니라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부도덕한 형제, 부도덕한 자매, 그리고 공개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교회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는 것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귀여운 단음절 단어가 아니고, 농담으로 음절 단어를 말했지만, 신 앞에서 무언가에 대해 말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착하는 단어입니다. 5:9, 편지에서 당신에게 썼습니다. 이것은 다른 편지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곳에 조각이 없으면 없는 편지입니다.

나는 편지에서 성적 부도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때 이미 고린도 공동체에 성에 대해 지시했고,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밖에 있을지도 몰라. 10절, 전혀 아니다는 뜻은, 그러니까 그들은 밖에 있었을 거야, 전혀 아니다는 뜻은 이 세상의 사람들, 오, 미안, 제가 반대로 말했어요,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그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고, 전혀 아니다는 뜻은 이 세상의 부도덕하거나 탐욕스럽고 사기꾼인 사람들을 의미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두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바울은 전에 그들에게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밖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아와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책임이 아니라면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 즉, 부도덕하거나 탐욕스럽고 사기꾼, 우상 숭배자 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신에게 쓰는 것은 형제나 자매라고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사기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그러니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바울도 여기서 절대적으로 명확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교정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에서 교정할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헤롯과 그의 죄악스러운 행동에 대해 설교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특정 문화권에서는 우리는 그것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하여 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하여 로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진해서 외부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다른 문화권보다 더 많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매우, 매우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과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해야 할 모든 일을 이름 붙인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보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발언권이 있지만, 그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영지, 우리만의 작은 왕국, 우리만의 작은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글썄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12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 일이 뭐예요? 이제 알다시피, 바울이 판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을 행동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그러한 기대를 세운다면, 당신은 당신의 기대가 완전히 거부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좌절할 것입니다. 헤이스는 그의 책 88페이지에서 511의 목록이 신명기에 언급된 배제 텍스트를 반영할 수 있다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5:13의 배제 선언으로 나아가, 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구약은 5장에 매우 통합되어 있다. 신명기에서, 당신은 음란함, 간음, 우상 숭배, 악의적인 거짓 증언, 반항적인 술 취한 아들, 납치,

노예 거래에 대한 배제를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에서, 당신은 탐욕과
우상 숭배, 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성적
부도덕을 가지고 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확실히 주제적입니다. 비록 그가 신명기를 인용한 것 같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당신은 바울을 잘라냈고, 그는 구약성경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성경을 꺼내고, 심지어 때로는 그 구절과 함께 꺼내고, 그들은
아마도 그것을 생각하거나 인용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매우 깊이 관여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가르침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4쪽에서 교회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2절과 13절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대해 함축한 의미입니다. 그 명확화는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발음할 수 있어요. 당신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저
권한이 없을 뿐이에요.

당신은 경찰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티켓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기를 바랄지 몰라도,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목소리뿐이며, 당신은 그 목소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권위와 통제에 대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부 문화권, 특히 미국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텍스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것은 법적, 정치적 참여의 현대적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텍스트를 사용하여 낙태에 반대하는 기독교 조직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권리입니다. 또한 낙태에 반대하는 기독교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보세요, 한 쪽은 다른 쪽을 비난할 수 없고, 다른 쪽은 다른 쪽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 문화에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목소리도요. 하지만 우리는 권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신은 우리를 그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의 일부는 우리 세상에서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구원 없이도 그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가정 하에 운영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도전적인 텍스트죠? 훨씬 더 많은 세부 사항이 있겠지만, 그게 바로 5장에서 할 일입니다. 폭넓게 읽으세요. 저는 많이 읽습니다. 더 많이 읽을수록 더 잘 이해하고, 텍스트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이 강의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게리 미더스 박사의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15강, 바울의 특정 구두 보고/소문에 대한 대응입니다. 고린도전서 5:5-13